

주최 · 주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 KPSA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복 80주년, 남북 문화교류 리더십 캠프

일시_ 2025. **8.20.**(수) ~ **23.**(토) (3박 4일)

장소 _ 부산 일대 및 국립부경대학교

목차



- | | |
|--|----|
| 1. 남북 문화교류 리더십캠프 프로그램 상세 일정 | 00 |
| 2. 교육세미나1 문화로 다가가는 통일
최순미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객원연구원) | 00 |
| 3. 교육세미나2
북한 전문기자가 본 남북관계, 이상과 현실
안정식 (SBS 북한전문기자) | 00 |
| 4. 교육세미나3
조선, 가장 가깝고도 가장 먼 그들과 만났을 때
김유연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00 |
| 5. 리더십 캠프 현장답사 장소 | 00 |
| 6. 조별 명단 | 00 |
| 7. 비상연락망 | 00 |



1.

남북 문화교류 리더십캠프 프로그램 상세 일정

광복 80주년, 남북 문화교류 리더십 캠프 프로그램



프로그램

시간	일정	
[1일차] 8월 20일(수)		
13:00~14:00	캠프 참가자 집합	부경대학교 세미나실
14:00~15:30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조별 편성)	
16:00~18:00	[강의 1] 문화로 다가가는 통일 강사: 최순미(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객원연구원)	
18:00~19:30	저녁식사	시내 식당
19:30~	숙소 이동 및 휴식	라마다앙코르호텔 해운대
[2일차] 8월 21일(목)		
07:00~09:00	아침식사 및 이동 준비	라마다앙코르호텔 해운대
09:00~10:00	세미나실 이동	부경대학교 세미나실
10:00~12:00	[강의 2] 북한 전문기자가 본 남북관계, 이상과 현실 강사: 안정식(SBS 북한전문기자)	
12:00~13:00	점심식사	도시락
13:00~18:00	조별 프로젝트 준비	부경대학교 세미나실
18:00~19:30	저녁식사	시내 식당
19:30~	숙소 이동 및 휴식	라마다앙코르호텔 해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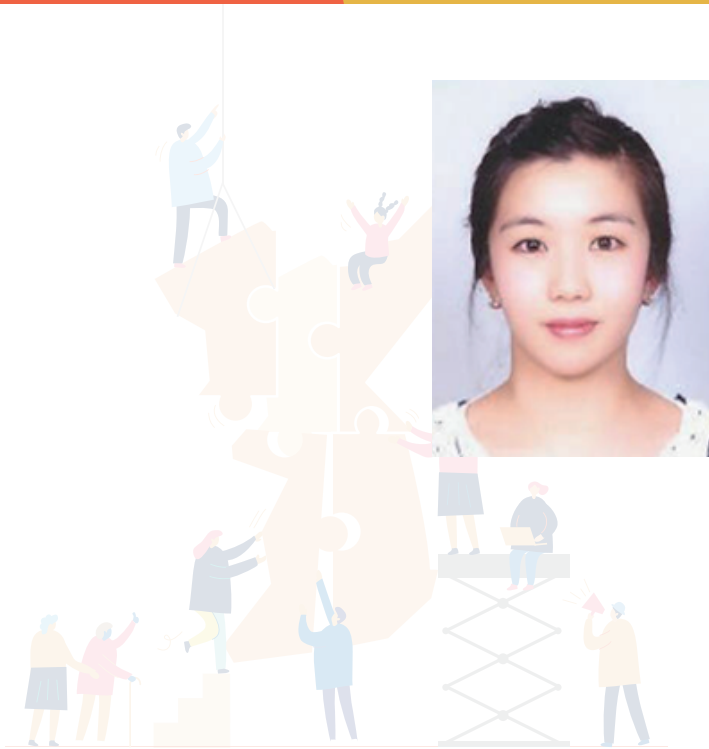
광복 80주년, 남북 문화교류 리더십 캠프 프로그램



프로그램

시간	일정	
[3일차] 8월 22일(금)		
07:00~09:00	아침식사 및 이동 준비	라마다양코르호텔 해운대
09:00~10:00	세미나실 이동	부경대학교 세미나실
10:00~12:00	[강의 3] 조선, 가장 가깝고도 가장 먼 그들과 만났을 때 강사: 김유연(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12:00~13:00	점심식사	시내 식당
13:00~14:30	[현장학습 1]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부산 서구
14:40~15:40	[현장학습 2] 임시수도기념관	부산 서구
16:00~17:00	[현장학습 3] 부산근대역사관	부산 중구
17:30~18:00	[현장학습 4] 유엔기념공원	부산 남구
18:00~19:30	저녁식사	시내 식당
19:30~	숙소 이동 및 휴식(조별 프로젝트 준비)	라마다양코르호텔 해운대
[4일차] 8월 23일(토)		
07:00~09:00	아침식사	라마다양코르호텔 해운대
09:00~10:00	세미나실 이동	부경대학교 세미나실
10:00~13:00	조별 발표 및 수료식*	
13:00~	해산	

* 전 과정을 이수한 분에게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강사 약력]

현 총신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객원연구원

2023~ 현재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위원

2018~2021 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

연구조교수

2015 고려대학교 북한학 박사

<주요 연구- 저서, 학술논문 등>

한반도 스케치北 (2021)

한국인의 북한이미지 (2019)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주민 의식변화 (2018)

2.

교육세미나 1

문화로 다가가는 통일

최순미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객원연구원)



문화로 다가가는 통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할까?

최순미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01

문화로 통일에 다가가기 전에
North Korea Studies



North Korea Studies

문화의 유형에 따른 분류

(1) 문화의 대상에 따른 분류 : 물질문화 / 비물질(정신)문화

- ① 물질문화 : 음식, 복식, 주택
- ② 정신문화 : 가치, 신념, 규범

(2) 성인 집단의 향유 정도에 따른 분류 : 중핵문화 / 주변문화

- ① 중핵문화 : 다수 집단이 향유하며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문화
- ② 주변문화 : 일부 소수집단에만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문화

(3) 내용에 따른 분류 : 경험적 문화 / 심미적 문화 / 규범적 문화

- ① 경험적 문화 : 떡 만드는 법, 한복 만드는 법
- ② 심미적 문화 : 음악, 미술, 춤과 같은 미에 관한 가치나 이념
- ③ 규범적 문화 : 규범, 제재, 선악의 기준

본 강의에서 다루는 문화는 “심미적 문화”

심미적 문화 : 음악, 미술, 춤과 같은 미에 관한 가치나 이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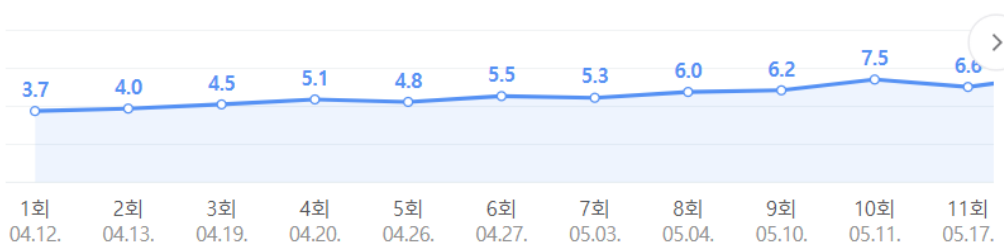
North Korea Studies

문화의 특성

- (1) 문화는 학습됨
- (2) 문화는 공유됨
- (3) 문화는 상징성이 있음, 상징을 이용함
- (4) 문화는 상호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음
- (5) 문화는 합리성을 가짐
- (6) 문화는 적응성을 가짐
- (7) 문화는 역동성이 있음
- (8) 문화는 축적되는 역사성이 있음
- (9) 문화는 많은 하위문화를 지니고 있음
- (10) 문화는 상대적이며 개인차와 집단차이가 있음



문화로 특정 대상이나 현상을 이해하려면,
문화의 특성을 전제로 한 수용자의 태도가 중요





02

북한, 통일 소재 영화의 해석

North Korea Studies



North Korea Stu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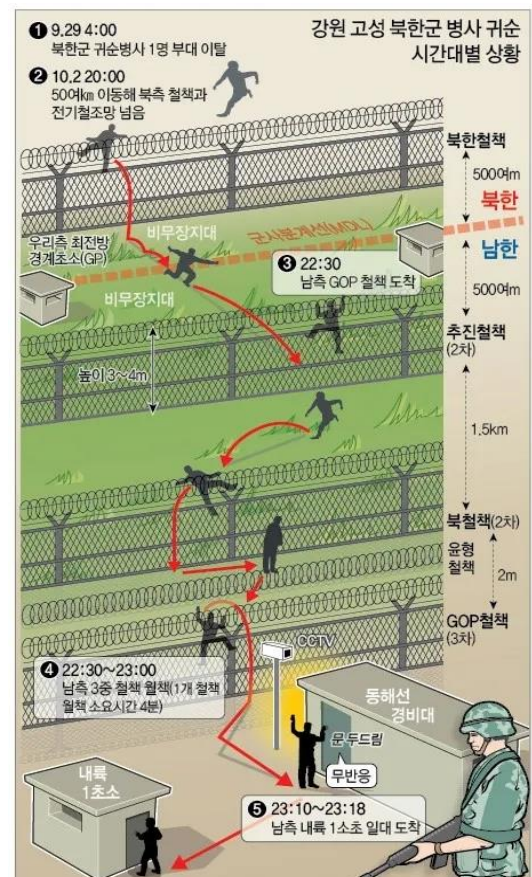
북한, 통일 관련 영화 종류

제작 주체	북한, 통일 관련 영화 예시
남한 제작	한국전쟁 관련 영화들..., 쉬리(1999), 공동경비구역JSA(2000), 실미도(2003), 크로싱(2008), 베를린(2012), 은밀하게 위대하게(2013), 강철비(2017, 2020), 공 조(2017, 2022), 뷰티풀데이즈(2018), 여보세요(2018), 이상한 나 라의 수학자(2022), 헌트(2022), 로기완(2024), 탈주(2024) 등
북한 제작	피바다(1969), 기다리는 처녀(2002), 도시처녀 시집와요(2003), 평 양 날파람(2006), 한 녀학생의 일기(2007), 우리집이야기(2016), 하루낮 하루밤(2023), 령리한 너구리(1987~현재), 소년장수 (1982~2009), 고주몽(2017), 악마를 이긴 억쇠(2020), 하루낮 하 루밤(2022) 등
해외 제작	굿바이 레닌(독일, 2003), Kim Ki-Dok(폴란드, 2006), 가족의 나라 (일본, 2012), 비온드 유토피아(미국, 2024) 등
기타 합작	형제들(북한, 소련, 1957), 천리마 축구단(다니엘 고든, 2002), 어 떤 나라(다니엘 고든, 2004), 왕후심청(남한, 북한, 미국, 2005), 푸 른 눈의 평양시민 (다니엘 고든, 영국, 북한, 2006), 김동무는 하늘 을 난다(영국, 벨기에, 북한, 2012), 평양에서의 약속(북한, 중국, 2012), 산 넘어 마을(미국, 북한, 2012), 나는 선무다(중국, 한국, 미국, 2015), 마담B(한국, 프랑스, 2018) 등

ex1

남한 제작 영화, 탈주

North Korea Studies





ex2

해외 제작 영화, 가족의 나라
North Korea Studies



“조국이라 강요 당한 나라, 그 곳엔 소중한 내 가족이 있다.”

가족의 나라(かぞくのくに 가조쿠노쿠니)는

양영희가 감독을 맡은 2012년 일본의 드라마 영화이다.

재일 조선인 2세인 감독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영화는 제85회 아카데미상 외국어 영화상 일본의 후보작으로 선정되었다.



재일 조선인 성호는 조총련의 중역을 맡고 있는 아버지의 권유로 당시 '이상향'으로 불리던 귀국사업에 참가하여 반도로 건너가 현지에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지만 헤어진 가족과는 다시 만나지 못했다.

그 후 25년이 흐르고 성호의 일시 귀국이 실현된다. 성호의 뇌에 악성 종양이 발생하여 치료를 위해 3개월 동안만 일본 체류가 허가된 것이다. 오랜만의 재회에 여동생 리에와 어머니, 가족들은 기뻐하고 성호를 따뜻하게 맞아 들인다. 하지만 성호의 곁에는 항상 양동지가 뒤따르며 성호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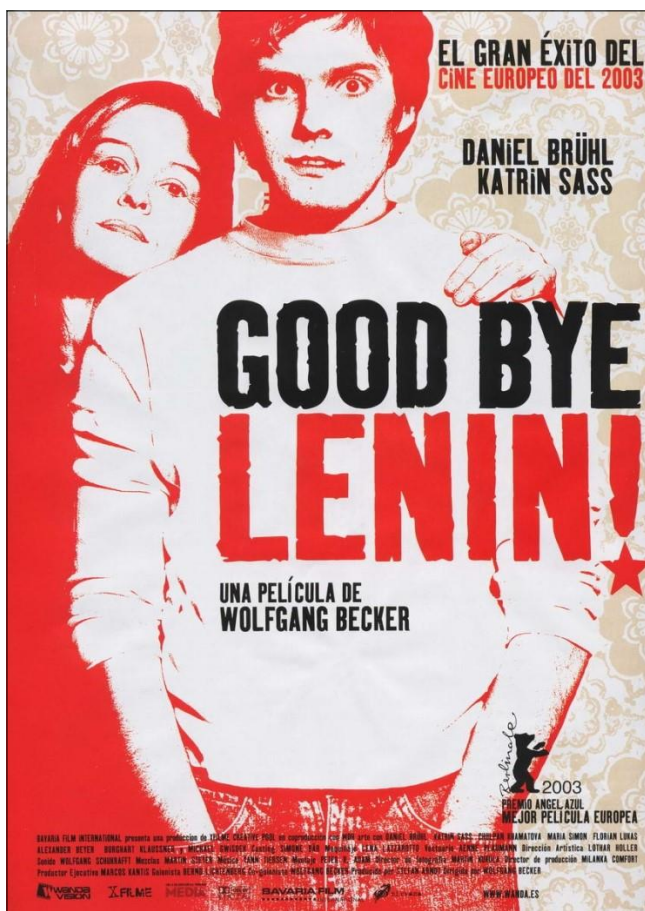
검사 결과 성호의 치료는 반년 이상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며 수술을 거절당한다. 어떻게 해서는 성호를 치료하려고 리에가 성호의 옛 연인이자 의사의 부인이 된 순이와 상담하던 중, 북한에서 갑자기 귀국 명령이 내려온다.



◇ [사진=미로비전]



독일영화, 굿바이 레닌
North Korea Studies



2003, 독일

Wolfgang Becker

제작

Stefan Arndt, Marcos Kantis, Manuela Stehr

각본

Wolfgang Becker, Bernd Lichtenberg

촬영

Martin Kukula

음악

Yann Tiersen

베를린 국제영화제 : Wolfgang Becker(블루엔젤상)



동독의 열혈 공산당원이자 교사인 크리스티아네는 베를린 장벽 제거를 주장하는 시위대에서 아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그 충격에 쓰러져 코마 상태에 빠진다. 8개월 후... 사회주의 동독이 이미 사라지고 통일 독일 하에서 의식을 되찾게 된다.. 아들 알렉스는 기뻐했지만, 엄마는 심장이 약해져 조금의 충격이라도 받으면 목숨이 위험하다는 의사의 경고를 받게 된다. 이때부터 엄마를 위한 아들의 지상최대 거짓말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엄마가 사는 아파트를 동독 시절의 모습으로 꾸며 놓고 쓰레기통을 뒤져가며 엄마가 찾는 구 동독 시절 오이피클 병을 구하고, 급기야는 동독의 발전과 서방의 붕괴를 담은 TV 뉴스까지 제작하기에 이른다. 알렉스의 거짓말 시리즈가 매일 부풀어가는 무렵 엄마는 심장마비에 걸리게 되고 알렉스에게 소원을 부탁 하는데...

ex4

북한 제작 영화들

North Korea Studies



North Korea Studies

북한영화의 역할과 특성

북한에서 영화는 강한 호소력과 전파력이 있는 장르로 대중교양과 선전을 위한 중요한 장르로서, 인민들에게 당의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공산주의적 인간형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 주민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기 위한 인민교양, 사회교육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당에서는 영화인들에 대해서 사상교양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화인들도 총화시간이나 학습시간을 통해 당 정책을 학습하고 있다. 영화제작은 기획단계에서부터 국가의 엄격한 관리와 통제를 받는다. 북한의 영화인들은 모두 일정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데, 소속기관에서 영화창작 단계에서부터 시나리오 집필, 영화창작, 편집, 평가와 보급의 모든 단계에서 자체평가, 공식검열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적인 특성을 드러내거나 당 정책에 맞지 않은 부분은 치열한 검열을 통해 비판되고 수정되고, 현시대 당이 요구하는 정책이 반영된 영화로 완성된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



North Korea Studies

북한 영화의 종류

유형에 따라,
예술영화, 기록영화, 과학영화, 아동영화로 구분한다.

묘사 대상의 미학적 성질과 표현기법에 따라,
‘정극영화’ , ‘비극영화’ , ‘희극영화’ 로 나누기도 한다.

표현 수단이나 기법에 따라,
‘음악예술영화’, ‘인형영화’ , ‘지형 영화’ , ‘그림 영화’ 로 분류하기도 한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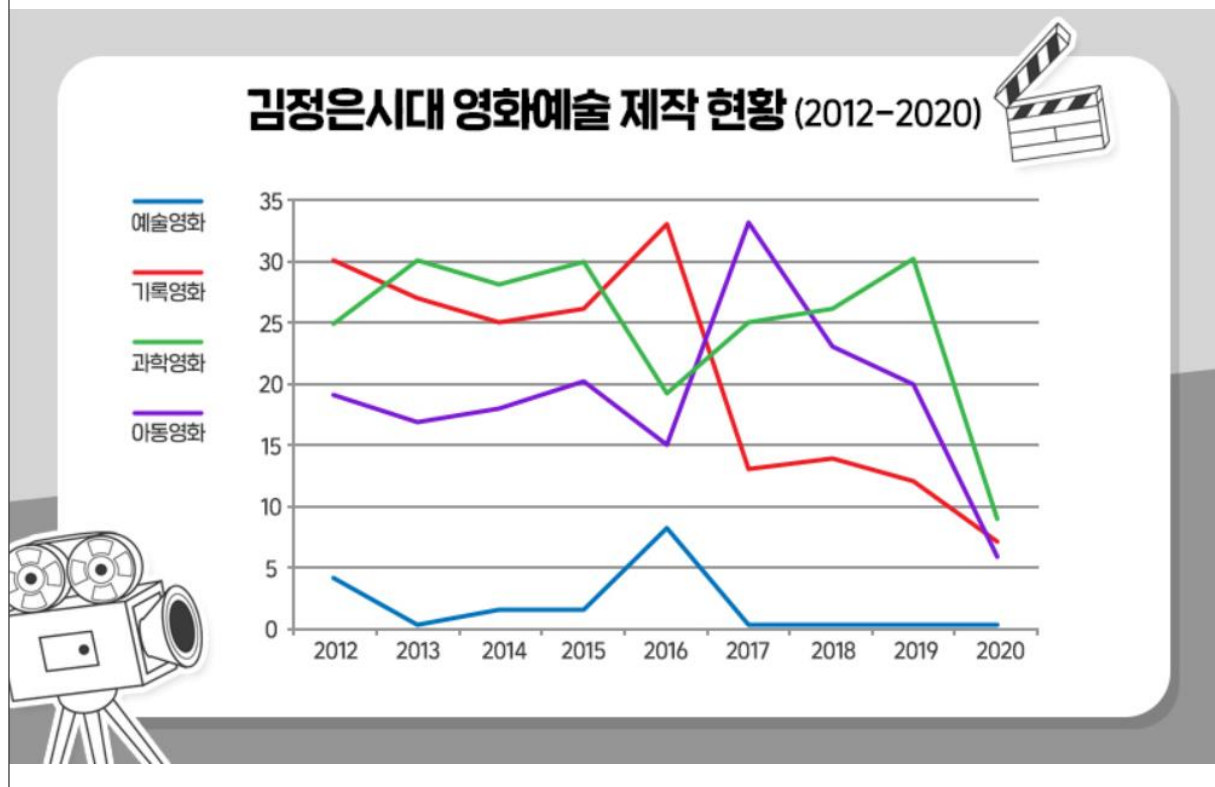
North Korea Studies

최근 트렌드

- 예술영화, 기록영화보다는 아동영화, 드라마
- 영화같은 텔레비죤연속극
- 패션, 메이크업 등 뷰티 분야 발전
- 유튜브 활용한 대외선전
- 광고와 마케팅 요소
- 청년중시정책

North Korea Studies

영화 제작 변화





North Korea Studies

아동영화



령리한 너구리, 소년장수 제작 재개

North Korea Studies

아동영화



악마를 이긴 역쇠



North Korea Studies

최신작



하루낮 하루밤

03

문화로 다가가는 통일

North Korea Studies



North Korea Studies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할까?

나(수용자)는 해당 문화의 배경을 충분히 알고 있나?

누가 만들었나?

어떤 의도로 만들었나?

남북한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다른가?

통일에 대한 관점의 차이?

Make your own question!



[강사 약력]

현 SBS 북한전문기자, 정치부 부국장

2007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

2002 서울대학교 정치학 석사

1996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1995 SBS 기자 입사

<주요 연구- 저서>

빛나간 기대- 준비되지 않은 통일 (2020)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2007)

3.

교육세미나 2

북한 전문기자가 본 남북관계, 이상과 현실

안정식 (SBS 북한전문기자)



북한전문기자가 본 남북관계, 이상과 현실

안정식 (SBS 북한전문기자)

목 차

1. 남북관계는 복원될 수 있을까
2. 북, 달라진 대남노선
3. 남북관계의 이상과 현실
 - 남북의 점진적 통일은 가능할까
4. 북한 체제는 영구히 지속될까
5. 하드랜딩 통일의 가능성
6. 통일, 꼭 해야 하나



1. 남북관계는 복원될 수 있을까

정권교체, 달라진 대북정책

- 대북 화성기 방송 중단
- 납북자 단체, 대북전단 중단 선언
- 표류 북한 주민 송환
- 국정원, 대북 라디오 방송 중단
- 김여정, “한국과 마주앉을 일 없다 ”
: “조한관계,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 완전히 벗어나”

남북관계는 복원될 수 있을까



남북관계, 37년 되돌아보면

- 노태우 정부부터 본격화된 남북관계
- 2000년 남북정상회담
- 남북관계의 제도화? (노무현 정부까지)
- 2010년 천안함 폭침
- 2016년 개성공단 가동중단
- 2018년 남북관계의 르네상스?
- 2023년 “남북,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
- 2025년 남북관계 복원 시동

2. 북, 달라진 대남노선



‘2국가’ 지향하는 북한

- 2023년부터 ‘대한민국’ 호칭 사용
 - : 따로따로 살자? (2국가론)
 - :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 다” (김여정 담화, 2022/8)
 - : ‘괴뢰’ 지칭 경우도 늘어
- 2023년말 전원회의 “남북,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
- 김정은 “통일, 화해, 동족 개념 완전히 없애야”
 - :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겨레’ 사용 금지
 - : 북한 애국가 가사에서 ‘삼천리’ 교체

2023년말 노동당 전원회의

- 남북, 적대적 교전국 관계
- 진보든 보수든 다르지 않다
 - : 괴뢰 정권이 10여 차례 바뀌었지만 자유민주주의 통일 기조는 이어져
 - :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 의문점
 1. 북한은 왜 진보에 대한 기대를 버렸을까?
 2. ‘진보’라는 용어 대신 ‘민주’를 쓴 이유는?



2023년말 노동당 전원회의

- 북한은 왜 진보에 대한 기대를 버렸을까?
 - : 문재인 정부 시기의 경험
 - : 진보 정부 집권해도 얻어갈 것 없다
 - : 남한에서 누가 집권하든 도움될 것 없는데 굳이 남북관계가 필요한가
 - : 남북관계 유지하는 한류 유입으로 사상단속에만 부담
- ‘진보’라는 용어 대신 ‘민주’를 쓴 이유는?
- 남북의 물리적 단절
 - : 경의선, 동해선 도로 지뢰 설치, 폭파
 - : 휴전선 곳곳에 방벽

정세는 변하지만

- 북한군 파병으로 북러 밀착 가속화
 - : 대미, 대남 관계개선 유인 약화
- 러-우 전쟁 종결, 북러 관계 변화 시?
 - : 대미, 대남 관계개선 유인 생길 수도
- 미세조정 가능하지만 본질적 변화 가능할까
 - : 특히 대남관계



3. 남북관계의 이상과 현실 – 남북의 점진적 통일은 가능할까

돌고돌아 제자리인 남북관계

- 진보정부의 포용정책, 보수정부의 압박정책 모두 실패
 - : 포용정책(햇볕정책) – 돈 맛으로 북한을 변화시킨다
 - : 압박정책 – 국제적 대북압박으로 핵포기와 북한 변화 유도
- 대북정책은 상대가 있는 정책
 - :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도 성공 장담할 수 없어
- 여야 정권교체 때마다 180도 바뀌는 대북정책
 - : 북한의 내성만 키울 뿐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실패
- 5년, 10년 단위로 바뀌는 대북정책으로는 어느 정부의 대북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우리 대북정책은 왜 실패했나 – 북쪽원인

- 북한은 김일성 일가의 왕조적 독재체제
 - : 최고지도자에 대한 과도한 우상화, 신격화
 - : 외부 정보가 유입되게 되면 이 체제는 유지될 수 없다
 -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 김일성 일가가 절대적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한 외부 개방은 불가능
- 체제의 경직성이 계속되는 한 북한 변화에는 한계가 명확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

- 남한
 - : 진보와 보수 간의 적대적 분열
 - : 여야 정권교체 때마다 대북정책 달라지는 상황 앞으로도 계속될 것
- 북한
 - : 김일성 일가가 권력 유지하는 한 변화에 한계
- 앞으로도 우리 대북정책으로 북한을 변화시켜 소프트랜딩 통일을 이루기는 어렵다



바람직한 것이 꼭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기대와 현실은 다른 것
 - : 현실은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쓰디쓴 것이 될 수도 있다
 - : 원하지 않는 현실이 다가온다고 해서 회피할 수는 없다
- 소프트랜딩 통일이 바람직한 것은 분명하지만, 남북의 현실로 볼 때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
- 오히려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하드랜딩 통일

4. 북한 체제는 영구히 지속될까



김정은 정권, 붕괴될 수 있을까

- 내부로부터의 붕괴 가능성
 - : 쿠데타?
 - : 대중시위?
 - 폭압적 통치체제 유효,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부재,
 - 반체제시위 구심점 없어, 외부의 충격(반체제시위 도미노),
 - 경제 위기
- 외부 압박에 의한 붕괴 가능성
 - : 중국의 압박?
 - : 전쟁을 통한 북한 정권 붕괴?

북한 체제에 변화가 생긴다면?

- 권력 승계 과정에서 내부 균열 가능성
 - : 세습은 한정된 인력풀(자녀) 안에서 후계자 고르는 과정
 - : 능력 있는 후계자가 계속 나와 잡음 없이 승계가 이뤄질 것인가
 - : 지금은 '충신불사이군'의 봉건시대가 아니다
- 4대 세습 시동
 - : 국정원 "김주애, 유력한 후계자"
 - : 변수
 - 김주애가 성인될 때까지 김정은이 건강 유지할 것인가
 - 김주애는 나라를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가
 - 성장 과정에서의 변수들



5. 하드랜딩 통일의 가능성

김정은 체제 붕괴시 다음 권력은

- 김정은 체제 붕괴된다고 민주화 되는 것은 아니다
 - : 북한 주민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른다
 - : 북한에서 대중시위는 어려워
- 북한과 비슷한 루마니아 사례 보니
 - : 차우셰스쿠 정권
 - 차우셰스쿠 마을은 성지, 생일은 루마니아 명절, 차우셰스쿠 가족들 여러 직책 독점, 아들로 세습 거론
 - : 차우셰스쿠 정권 붕괴 뒤 '구국전선' 세력 등장
 - 구국전선: 차우셰스쿠 정권과 깊은 연계 있던 구공산계 인물들
 - 반체제세력 존재하지 않아, 구공산계 인사들이 유일한 정치엘리트 그룹
 - 루마니아 국민 '구국전선' 지지, 민주화 준비 돼 있지 않았고 대안 없어



김정은 체제 붕괴시 다음 권력은

- 북한의 다음 권력도 현 권력층 중에서 등장할 가능성
: 당, 군, 보위 부문의 핵심인사?
- 초기 권력투쟁 과정에서 다소간의 혼란 가능성
- 보수 강경파가 권력을 잡을 경우 오래 지속될 수 없다
: '백두혈통' 정통성을 주장할 수 없는 후임 권력자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안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다
- 후임 권력자는 결국 일정 정도 개혁, 개방 추진할 수 밖에 없다

남북의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 후임 권력자가 개혁, 개방 추진하면 남북 간 교류협력 점진적 발전
- 선택의 기로
: 북한에 외부정보 유입되고 북한 주민들이 남한 실상 알게 되면 북한 내에 급속한 통일 요구 높아질 수 있어
: 빠른 통일로 갈 것이냐 vs 국가연합 형태의 점진적 통일로 갈 것이냐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
: 남북대화(화해협력/김영삼 정부)-남북연합-통일국가



국가연합과 연방제

- 국제정치적으로 일반화된 개념
- 대표적 사례
 - : 국가연합 - 유럽연합 (EU),
 - : 연방제 - 미국
- (북한의 고려연방제?)
- 국가연합은 연방제 통일국가로 발전한다?
 - : 1781-1787년 미국, 1815-1866년 독일
- 국가연합과 연방의 불안정한 사례들
 - : 스웨덴-노르웨이, 미국 남북전쟁, 통일아랍공화국(1958), 아랍공화국연합(1971), 구소련 해체, 브렉시트
- 독자성이 강한 개별 구성국들의 결합
 - : 통합이 반드시 순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 : 갈등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 국가연합이든 연방제든 언제든 깨질 수 있다

유럽연합의 사례

- 27개국의 연합체
- 표준적 의사결정 방식: 가중다수결제
 - : 27개국 가운데 55% 이상, 즉 15개국 이상 지지
 - : 회원국 전체 인구수의 65% 이상 국가 지지 받아야
- 왜 단순 과반이 아닐까
 - : 전체 인구 65% 이상
 - 소국들 연대해 15개국 이상이 돼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대국들 반대하면 부결
 - 대국들도 과반보다 많은 55%, 65% 지지 받아야 하므로 소국들의 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 : 대국 위상 인정해주면서 대국-소국 이해관계 정치적 타협



유럽연합의 사례

- 2017년 4월 이전 가중다수결제
 - : 각국별 투표권 수가 아예 달라
 - 전체 표수 345표
 - 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 29표, 스페인·폴란드 27표, 에스토니아·라트비아·룩셈부르크 4표, 몰타 3표
 - : 가결 조건
 - 255표 이상(73.91%), 과반(14개국) 찬성, 전체 인구 62% 이상
- 독일과 몰타
 - : 독일 인구, 몰타 인구의 155배 (2023년 기준)
 - : 독일 GDP, 몰타 GDP의 229배 (2022년 기준)
- 각국의 국력 차이 인정해 대국에게 큰 영향력 인정
 - : 국가별 영향력 차이 인정하는 것이 유럽연합 유지 토대

남북 국가연합은

- 남북의 경제력 차이
 - : 남한 인구, 북한 인구의 2배 (2022년 기준)
 - : 남한 GDP, 북한 GDP의 59배 (2022년 기준)
- 남북 국력 차이 감안하면 남한에 보다 큰 영향력(의결권) 인정해야
- 하지만, 남북 국가연합은 1 대 1의 구조로 구성될 수 밖에 없다
 - : 1대 1의 구조가 아니면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것
- 1대 1의 평등적 의결권 배분은 남북 갈등 심화시킬 가능성 높다
 - : 거의 모든 재정지원 남한이 부담하는데, 발언권은 절반 밖에
 - : "돈은 남한이 내는데, 혜택은 왜 북한이 보느냐" 불만 가능성
 - : '경제적기여도'와 '의사결정권'의 부조화
 - 남북 통합 촉진이 아니라 갈등 심화 가능성



남북 국가연합은

- 1대 1의 결합에서는 중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 회원국이 많을 경우(유럽연합), 일부 국가간 갈등 생겨도 다른 나라 중재 가능
: 1대 1의 결합에서는 중재할 국가가 없다
: 회원국이 많을 경우 갈등이 생기더라도 국가들 간 이익-손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정치적 타협 가능
: 1대 1의 결합에서는 한 쪽의 이익은 다른 쪽의 손해이기 때문에 정치적 타협 이루기가 쉽지 않다
- 1대 1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남북 국가연합은 통일의 길로 가기보다는 시스템적인 불안으로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남북의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 국가연합 방식의 통일은 파국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 중앙집권국가형 통일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 통일과정에서의 부작용은 통일한국 정부가 국내 정치(행정) 차원에서 풀어야



통일 부작용을 줄일 방법은?

- 정치적으로 통일정부를 이루되 남북 지역을 한시적으로 분리
: 중국-홍콩 시스템
 - 자유왕래 제한, 왕래시 허가 받아야
- 남북 지역은 물리적 분리가 가능하다
: 지뢰로 뒤덮인 휴전선
: 판문점 제외 다시 닫힌 육로 + 해상 월경
- 자유왕래 통제는 통합 속도를 정부가 제어한다는 뜻
- 과도기적 분리 기간 거친 뒤 정부 결정에 의해 완전통합으로
- 정치적으로는 즉각적 통일, 통합은 단계적으로

6. 통일, 꼭 해야 하나



통일, 꼭 해야 하나

- 분단돼 있는 한, 남북 간 긴장과 충돌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
 - : 주변국(미일중러) ... 안보리 상임이사국, 핵보유국, 세계 초열강
 - : 한반도가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있었다면 지역의 맹주
 - : 주변국에 비해 열세 ... 분단에 의해 심화
-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 : 주변국들이 한반도 선택 주시할 수 밖에 없어
- 통일은 우리가 독립변수로서 목소리를 내고 살기 위한 조건
- 통일의 시기가 왔을 때 놓쳐서는 안된다

미래는 예단할 수 없다

- 2008년 8월 뇌졸중으로 쓰러진 김정일
 - : 2008년 6월 국정원의 김정일 건강에 대한 설명
- 뇌졸중 쓰러진 뒤 3년 만에 사망한 김정일
 - : 김정일의 죽음은 예정된 수순이었나
- 지금 이상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예단은 무리
 - : 역사는 항상 사후적으로 설명돼 왔다



[강사 약력]

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2023 서울대학교 교육사회학 박사

2020~202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프로젝트연구원

2014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 석사

<주요 연구- 학술논문>

경계를 건넌 여성들의 고등교육 경험과
‘대학’의 의미 탐색 (2024, 공저)

개성공단 근무 경험자가 인식한 북한 근로자의
특성과 그에 따른 관계형성 전략 (2020)

4.

교육세미나 3

조선, 가장 가깝고도 가장 먼 그들과 만났을 때

김유연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2025.8.22. 남북 문화교류 리더십 캠프

조선, 가장 가깝고도 가장 먼 그들과 만났을 때

한국교육개발원 김유연 연구원



북한, '적대적 두 국가'로 급전환...무엇을 바꾸나

입력 : 2024.04.07 11:00 김찬호 기자

▶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가능성...영토 분쟁 소지에 핵 억제력도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15일 항공육전경부대(공수부대)들의 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16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북한, 대남 선전매체 홈페이지 지서 '통일' 코너 삭제

▶ ▶ ▶ ▶

[서울=연합뉴스] 지난달 말 열린 노동당 전향 회의에서 대남 선전매체를 선전할 북한에 각종 선전매체에서 '통일' 지우기에 나섰다. 4월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리얼' 홈페이지를 보면 통일 관련 코너가 삭제됐다. 사진은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의 변경 전(위 빨간색 네모박스) 모습. 변경 후(아래 빨간색 네모박스)는 '통일은 우리민족끼리' 코너가 삭제되고 '조선원대사전' 코너로 대체됐다. 2024.4.14(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nkphoto@yna.co.kr

재보는 카카오톡 okjebo
 <재보지리> 연합뉴스, 유엔 정책, 세계지리 학습 및 정보 공유> 2024.04.04 09:04 송고

#북한 #우리민족끼리 #통일코너 #지리



MBN 정동영 "통일부 명칭변경 필요... '한반도부'도 대안"

기사입력 2025-07-14 13:48 | 최종수정 2025-07-14 14:24



1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 사진: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14일) 통일부 명칭 변경이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의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국가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북한 UN 동시가입 30주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1. 9. 14. 15:46

URL 복사 + 이웃추가



1991년 9월 17일 유엔 본부에서 남북한 유엔가입이 확정된 뒤 축하인사를 받고 있는 북한 대표부 박길연 대사(좌측)와 주 유엔 노창희 대사(우측)
(사진: 연합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3V-SWIEEM_M





ASIA PACIFIC

Inside the hermit kingdom

By Mark Edward Harris | Apr 29, 2015

Print A+ A-



North Korea: Inside the hermit kingdom

It's been over 60 years since the signing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but recent events illustrate that North and South Korea are not any closer to a true or lasting peace. Still, there are those on both sides of the DMZ who are trying to bring about a detente. Their weapon of choice: tourism. Upon returning recently from North Korea, award-winning photographer and travel writer Mark Edward Harris filed these exclusive images. Pictured here, North Koreans bow to the newly unveiled statues of Kim Il Sung and Kim Jong Il in Pyongyang at the Mansudae Grand Monument.

북한은 여전히 은둔의 왕국일까요?

FEB
2025

UNCONNECTED POPULATIONS

COUNTRIES AND TERRITORIES WITH THE LARGEST UNCONNECTED POPULATIONS AND THE LOWEST LEVELS OF INTERNET ADOPTION



ABSOLUTE: LARGEST UNCONNECTED POPULATIONS

#	LOCATION	UNCONNECTED INDIVIDUALS	% OF POP. OFFLINE
01	INDIA	651,619,000	44.7%
02	CHINA	311,901,000	22.0%
03	PAKISTAN	137,453,000	54.3%
04	NIGERIA	128,323,000	54.6%
05	ETHIOPIA	105,209,000	78.7%
06	BANGLADESH	96,908,000	55.5%
07	DEM. REP. OF THE CONGO	77,059,000	69.4%
08	INDONESIA	72,172,000	25.4%
09	TANZANIA	49,305,000	70.9%
10	UGANDA	36,514,000	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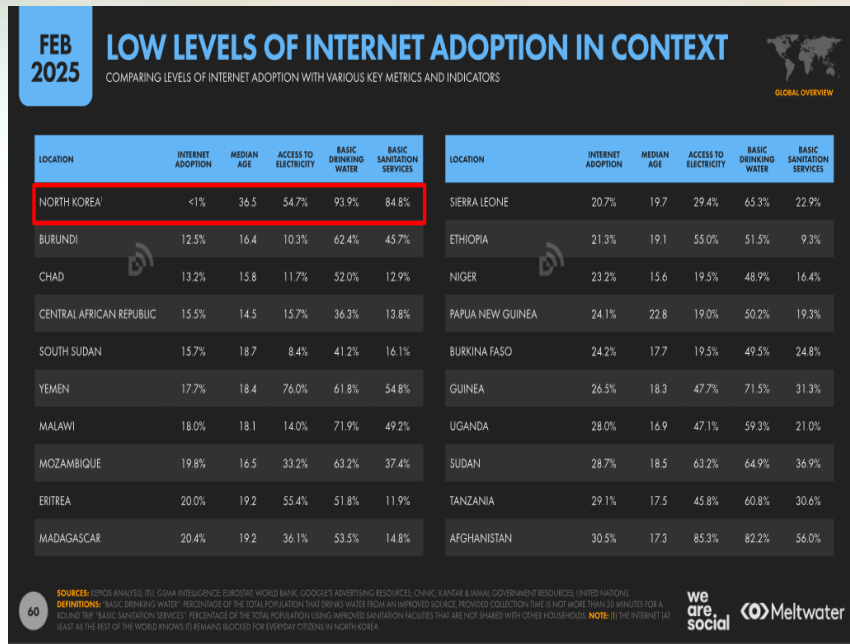
RELATIVE: LOWEST LEVELS OF INTERNET ADOPTION

#	LOCATION	% OF POP. OFFLINE	UNCONNECTED INDIVIDUALS
01	NORTH KOREA ^a	>99%	[BLOCKED]
02	BURUNDI	87.5%	12,441,000
03	CHAD	86.8%	17,992,000
04	CENTRAL AFRICAN REPUBLIC	84.5%	4,582,000
05	SOUTH SUDAN	84.3%	10,167,000
06	YEMEN	82.3%	33,893,000
07	MALAWI	82.0%	17,986,000
08	MOZAMBIQUE	80.2%	28,177,000
09	ERITREA	80.0%	2,856,000
10	MADAGASCAR	79.6%	25,75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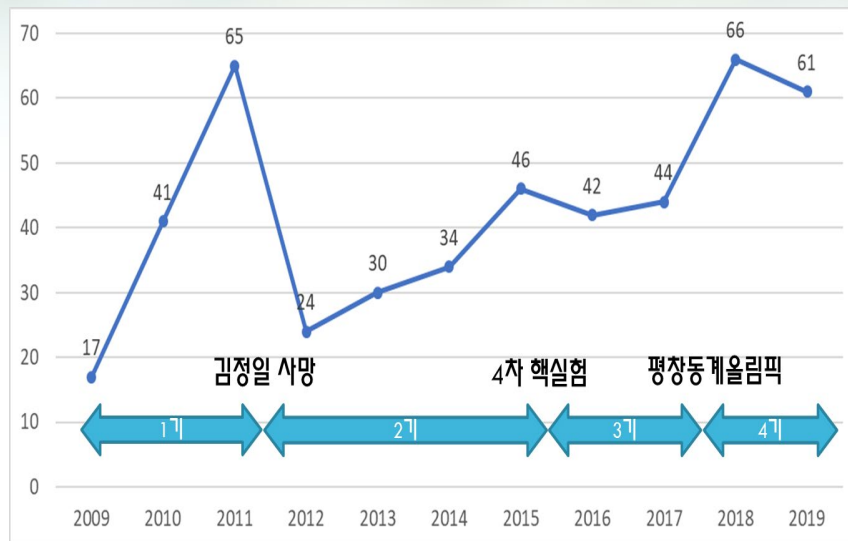
SOURCES: KENNY ANALYSIS; ITU; GSMA INTELLIGENCE; EUROSTAT; GOOGLE'S ADVERTISING RESOURCES; CHINIC; KANFAM & HANAL; LOCAL GOVERNMENT AUTHORITIES; UNITED NATIONS. **NOTES:** FIGURES IN THE '% OF POP. OFFLINE' COLUMN REPRESENT THE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THAT DOES NOT YET USE THE INTERNET. ABSOLUTE VALUES HAVE BEEN ROUNDED TO THE NEAREST THOUSAND. (1) THE INTERNET IS AT LEAST AS THE REST OF THE WORLD KNOWS IT REMAINS BLOCKED FOR EVERYDAY CITIZENS IN NORTH KOREA. **COMPARABILITY:** SOURCE AND BASE CHANGES. ALL FIGURES USE THE LATEST AVAILABLE DATA, BUT SOME SOURCES DO NOT PUBLISH REGULAR UPDATES. (2) FIGURES MAY VARY FROM REPRESENT ACTUAL USE. SEE FIGURES ON DATA.

59

we are social Meltw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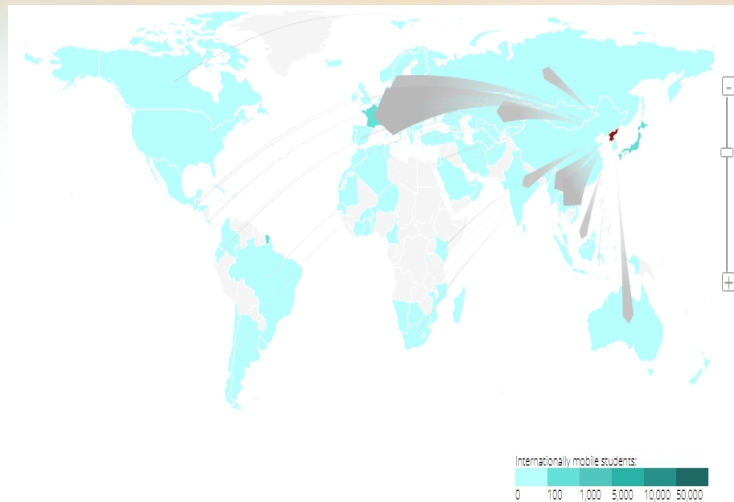


1990-2019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세계'의 언급빈도
출처: 임수진(2021: 261)



연도별 「교육신문」의 '세계적 추세' 관련 기사 빈도 추이
출처: 김유연(2023: 78)





Korea, DPR

북한의 출국 유학생 행선지 인포그래픽

출처: UNESCO UIS 홈페이지 (검색일: 2022.6.23.) <http://uis.unesco.org/en/uis-student-flow>





朝鮮日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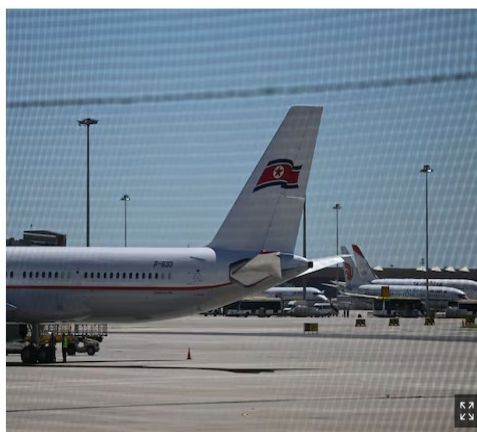
정치 > 북한

北, 코로나로 봉쇄했던 국경 3년 7개월만에 공식 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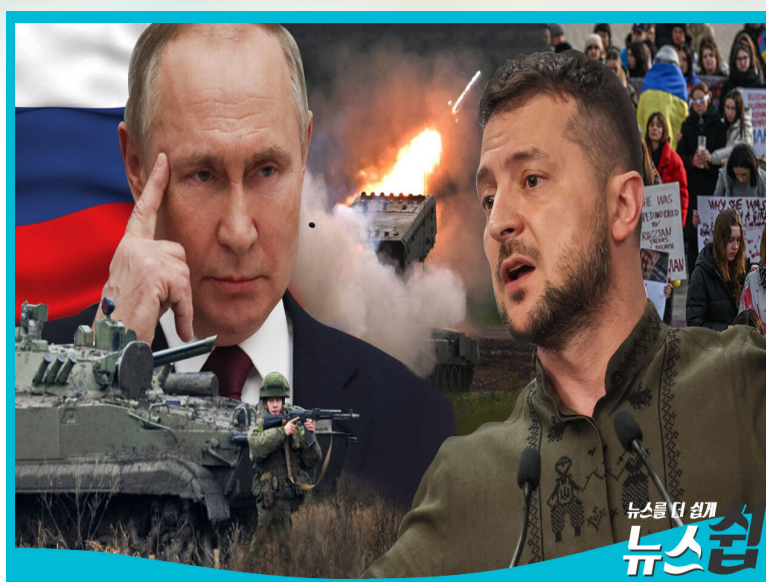
박상기 기자

업데이트 2023.08.27. 10:24

가



북한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 소속 여객기가 지난 22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착륙해 있다. 북한 여객기가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한 2020년 1월 이후 3년 7개월여 만이다./연합뉴스







정치 > 전체

[단독] '러시아 파병 특수' 北, 얼마나 벌었나... "25조원 추산, 연간 北 수출액의 55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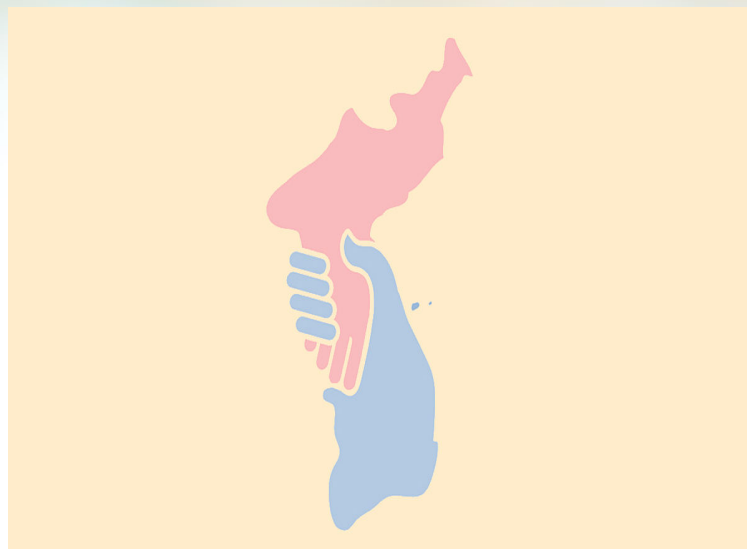


신경희 기자 | 정치부 등록: 2025.07.22 오후 16:58 · 수정: 2025.07.22 오후 17:12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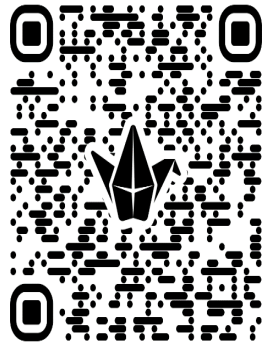
북한이 5000t 규모 신형 구축함 추가 건조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러시아 파병으로 벌어들인 이른바 '전쟁 특수' 금액이 우리돈 25조 원에 육박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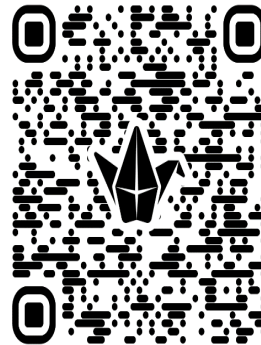
남과 북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남북한 두 국가론에 대한 생각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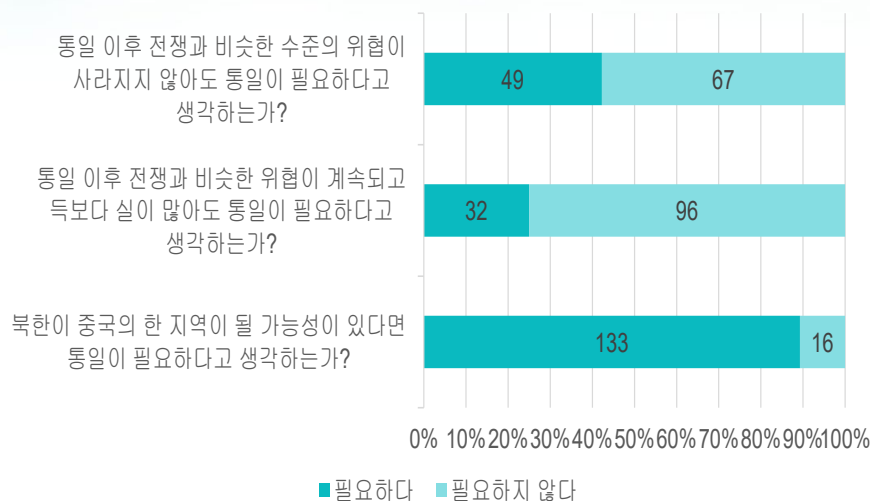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는?

- | | |
|----------------------------|--------------|
| •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 | 170명(42.34%) |
| •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 75명(19.44%) |
| • 이산가족의 아픔을 해결해주기 위해 | 69명(17.31%) |
| •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 33명(8.26%) |
| •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 25명(6.13%) |
| •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 20명(5.06%) |
| • 나의 삶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 6명(1.46%) |

출처: 김윤경(2025), 초등학생 대상 통일교육 인식조사에 근거한 초등 도덕과 통일교육 개선 방향.



특정 조건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4~6학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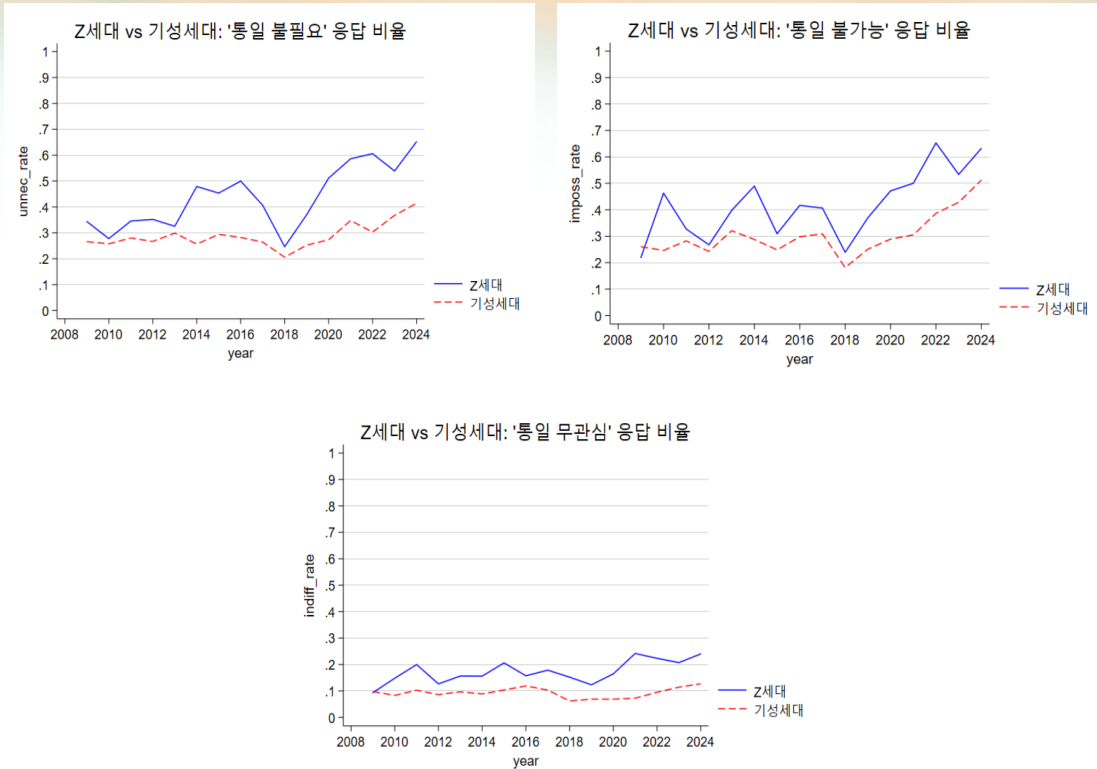
출처: 김윤경(2025), 초등학교 대상 통일교육 인식조사에 근거한 초등 도덕과 통일교육 개선 방향.

2024 통일인식조사

제7장

Z세대의 통일 회의론 분석: 자발적 회의론, 비자발적 회의론, 그리고 통일 무관심

| 김택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표 2-7-2〉 통일에 대한 불필요 인식

	기성세대		Z세대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지역 갈등	-0.922** (0.080)	-0.893** (0.081)	-0.909** (0.182)	-0.828** (0.186)
	0.477** (0.066)	0.339** (0.070)	0.353* (0.161)	0.329* (0.165)
성별	0.137** (0.040)	0.213** (0.042)	0.132 (0.104)	0.118 (0.104)
	0.284** (0.049)	-0.135* (0.068)	0.094 (0.217)	0.058 (0.223)
연령		-0.043** (0.004)		0.050+ (0.029)
		0.006 (0.037)		0.147 (0.099)
소득 수준				(0.110) (0.323)
		-0.304** (0.051)		-0.345** (0.118)
북한에 대한 배경지식		0.005 (0.047)		0.046 (0.115)
연도 고정효과	V	V	V	V
N	4792	4788	724	724

주1: 괄호 안은 표준 오차임.
주2: + p < 0.1, * p < 0.05, ** p < 0.01.



〈표 2-7-3〉 통일에 대한 불가능 인식

	기성세대		Z세대	
	모델5	모델6	모델7	모델8
지역 갈등	-0.255** (0.068)	-0.238** (0.069)	-0.278+ (0.151)	-0.230 (0.156)
성별	0.286** (0.059)	0.156* (0.062)	0.011 (0.139)	-0.017 (0.141)
이념 성향	0.072* (0.036)	0.091* (0.038)	0.054 (0.094)	0.038 (0.095)
교육 수준	-0.109* (0.043)	-0.236** (0.061)	-0.092 (0.185)	-0.088 (0.189)
연령		-0.018** (0.004)		0.016 (0.025)
소득 수준		-0.031 (0.033)		0.130 (0.091)
결혼		0.060 (0.101)		0.225 (0.267)
북한에 대한 배경지식		-0.371** (0.046)		-0.215* (0.103)
북핵 위협		0.051 (0.043)		-0.046 (0.098)
연도 고정효과	$\bar{u}$	$\bar{u}$	$\bar{u}$	$\bar{u}$
N	6260	6254	1005	1005

주1: 괄호 안은 표준 오차임.

주2: + p < 0.1, * p < 0.05, ** p < 0.01.

〈표 2-7-4〉 통일에 대한 무관심

	기성세대		Z세대	
	모델9	모델10	모델11	모델12
지역 갈등	-0.409** (0.111)	-0.388** (0.111)	-0.508* (0.210)	-0.400+ (0.217)
성별	0.289** (0.091)	0.159+ (0.095)	-0.014 (0.181)	0.038 (0.187)
이념 성향	0.155** (0.055)	0.213** (0.058)	0.151 (0.114)	0.180 (0.118)
교육 수준	0.021 (0.067)	-0.306** (0.094)	-0.264 (0.226)	-0.391+ (0.232)
연령		-0.029** (0.006)		0.038 (0.032)
소득 수준		0.072 (0.049)		0.246+ (0.129)
결혼		-0.041 (0.148)		-0.856* (0.412)
북한에 대한 배경지식		-0.403** (0.074)		-0.085 (0.134)
북핵 위협		-0.165* (0.067)		-0.169 (0.127)
연도 고정효과	$\bar{u}$	$\bar{u}$	$\bar{u}$	$\bar{u}$
N	6261	6255	986	986

주1: 괄호 안은 표준 오차임.

주2: + p < 0.1, * p < 0.05, ** p < 0.01.



베를린 장벽 붕괴(1989.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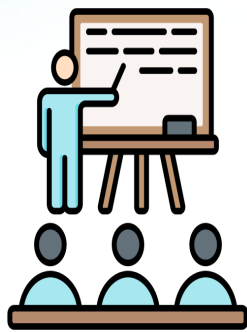
1989년 6월 헬무트 콜 총리 "통일은 독일 국민 모두의 염원이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그것과는 매우 다르다"

통일에 대해 젊은 세대가 가진 회의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자유 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은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하고 준비할 수밖에 없는 일임은 분명하다. 현재와 같은 북한 독재 체제의 내구력이 영원할 수 없다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상치 못한 미래의 어느 시점에 한반도 통일의 기회가 우리 눈 앞에 성큼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의 무관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통일 논의의 반복이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의 구체적 성과를 보여주고, 그들이 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김택빈, 『2024 통일의식조사』 중



통일교육 → 통일역량을 키워주는 교육



통일대비 인적 역량의 전문성

- ① 북한에 대한 이해
- ② 분야별 교류 및 지원 방식에 대한 전문성
- ③ 분야별 남북한 통합전략에 대한 전문성
- ④ 주민접촉 및 통합실무 수행 시 갈등관리 및 조정의 전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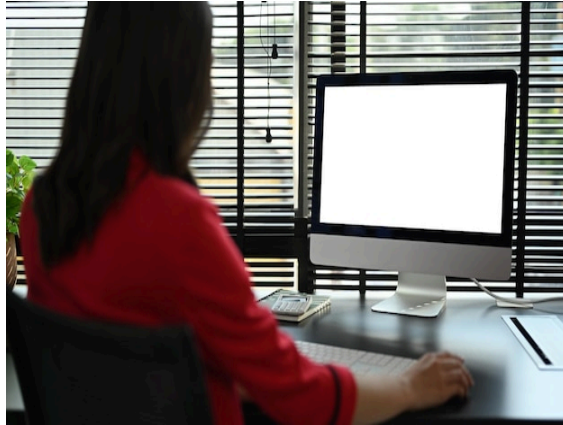
김수암 외(2016).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남북한 통일의 실험장, 개성공단(2004년 12월~2016년 2월)



나는 개성공단으로 출근합니다

개성에서 보낸 봄·여름·가을·겨울 이야기.
그리고 다시 봄을 함께 보내고 싶었던,
그곳 사람들을 기억하다.

김민주
지음



개성공단 근무 경험자가 인식한 북한 근로자의 특성과 그에 따른 관계형성 전략 183

일반 논문

개성공단 근무 경험자가 인식한 북한 근로자의 특성과 그에 따른 관계형성 전략*

김유연 (서울대)

국문요약

본 연구는 개성공단 근무 경험자가 인식한 북한 근로자의 특성과 그에 따른 관계형성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북한 사람들에게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 평화·통일교육과 북한이해교육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개성공장에서 근무하여 북한 근로자의 라이프를 형성했던 남한 근로자 다섯 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북한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을 근거로 한 '강군군국'에서 살면서 지겹도록 행동하지만, 생존을 위해 부정직한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은 남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모, 문화, 언어, 경제 개념 등에 많은 변화를 보였다. 남한 근로자들은 그러한 북한 근로자들의 특성에 따라 안내하기, 이해하기, 인종 주기, 부딪치기, 인종 열기를 전략으로 활용하여 그들과 리포를 형성하였다. 남북관계의 화해와 협력이 필요한 관계라고 본다면 이러한 신뢰관계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근무 경험자들이 관찰한 북한 근로자의 특성은 북한이해교육에 유용한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으며, 그들이 위한 관계형성 전략은 평화·통일교육 대상자에게 주주 북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대처법에 대한 힌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특성, 관계형성 전략, 북한이해교육, 평화·통일교육

* 이 논문은 2019년 국제강학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유익한 심사평을 해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DOI URL: <https://doi.org/10.35369/jps.12.2.202012.183>

www.kci.go.kr



개성공단 근무 경험자가 인식한 북한 근로자의 특성1 “평생 직업군인인 사람들”



개성공단 근무 경험자가 인식한 북한 근로자의 특성2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산다”





개성공단 근무 경험자가 인식한 북한 근로자의 특성3
“정직하면 바보다”



개성공단 근무 경험자가 인식한 북한 근로자의 특성4
“민족의 소원이 통일인데”



개성공단 근무 경험자가 인식한 북한 근로자의 특성5
“컬러풀한 걸로 점점 선호를 바꾸니까”



개성공단에서 근무했다면, 북한 근로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으신가요?

적대 관계

피상적 관계

친밀한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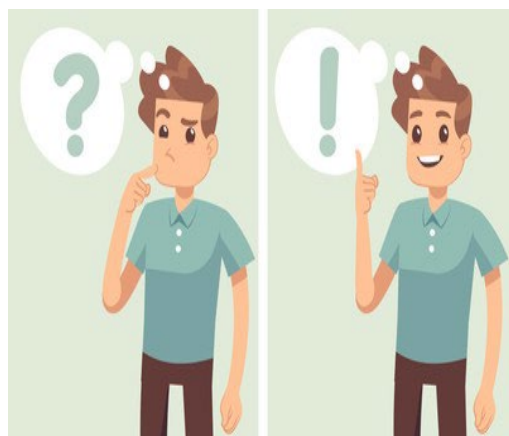




남북한 근로자 간 관계형성 전략1
인내하기: “처음에는 듣는 쪽으로”



남북한 근로자 간 관계형성 전략2
이해하기: “우리도 그랬잖아요”





남북한 근로자 간 관계형성 전략3
선물 주기: “그 사람들 있는 공간에 잘 가져다 놓고”



남북한 근로자 간 관계형성 전략4
부딪치기: “세계 하면은 인정을 해줘요”



남북한 근로자 간 관계형성 전략5 신뢰 얻기: “저 사람은 믿어도 되겠구나”



‘극장국가’ 무대 뒤의 진심 어린 관계



‘먼저 온 통일’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기

Thank you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

리더십 캠프 현장답사 장소



[답사1]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이 건물은 도청 소재지를 진주에서 부산으로 옮기면서 건립한 경남도청으로, 한국전쟁 당시 임시 정부청사로 사용하였다.

처음 준공할 때는 ‘一’ 자 모양의 평면으로 구성하였으나, 1960년대 증·개축으로 ‘口’ 자 모양, ‘日’ 자 모양으로 바뀌었다. 정면 가운데에 현관 포치(porch)가 돌출되어 있고, 가운데와 양쪽 끝 부분을 돌출시키고 그 위쪽을 박공지붕으로 구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위엄 있는 입면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근대사의 정치·사회적 변화를 간직한 역사적인 건물로 구 경상남도지사 관사(지금의 임시수도기념관)와 더불어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근대 공공 건축물이다. 현재 동아대학교 박물관으로 쓰고 있다.



[답사2] 임시수도기념관



임시수도기념관 건물은 1925년경남도청이 진주에서 부산으로 옮겨올 때 지은 것으로 1926년 8월 10일 준공되었다. 1983년 7월까지 경상남도지사 관사로 사용되었던 목조 건물이다. 한국전쟁 당시 부산이 임시수도가 되었을 때(1950~1952년) 대통령관저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1983년 7월 1일 경남도청이 창원시로 옮겨 감에 따라 부산시가 이 유서 깊은 건물을 임시수도기념관으로 보수하여 활용하게 되었다.

1984년 6월 25일 개관하였는데, 이때에 통일을 염원하고 수복 환도를 되새기는 뜻으로 건물입구 정면에 ‘사빈당’이라는 현판도 달았다. 1997년과 2000년에 개보수 작업 및 유물 추가 전시를 하였으며, 2012년 7월에는 옛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 관사를 리모델링하여 임시수도 부산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착취의 중심이었던 조선총독부의 고위관료인 경남도지사의 관사라는 점과 민족의 비극인 한국전쟁 등, 한국 현대사의 질곡과 함께 한 건물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큰 건물을 박물관으로 활용한 만큼 관람객들에게 주는 교육적 효과는 크다고 본다.

[답사3] 부산근현대역사관



부산근현대역사관(舊부산근대역사관)은 일제강점기 시기 건축물인 부산 근대역사관(옛 동양척식주식회사, 미국문화원)과 한국 1세대 건축물인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을 연계한 역사박물관이다.

개항기와 일제강점기의 부산은 근대도시로 탈바꿈하였지만 일제 수탈 기구들이 밀집하면서 외세 침탈의 최대 피해지이기도 하였다. 해방 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임시수도, 1960년대 이후 산업 부흥의 기지 역할, 민주화 시기 부마항쟁 등으로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큰 전환점을 만들었다. 이런 격동의 역사에서 비롯된 오늘날 부산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자 2023년 부산근현대역사관(舊부산근대역사관)이 탄생하였다.

부산근현대역사관(舊부산근대역사관)은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즐기는 어린이 문화복합공간, 전시·공연 공간으로 새롭게 선보일 한국은행 금고, 다양한 지역사와 근현대사 자료와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별관 등 살아있는 역사의 장소에서 부산의 근현대사를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박물관이다.



[답사4] 유엔기념공원



유엔기념공원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유엔군 전몰장병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6·25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 전몰 장병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1959년 대한민국과 유엔간에 체결한 ‘재한국 국제연합 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간의 협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념묘지이다. 묘지 설치를 위해 우리나라 정부는 무상으로 토지를 영구히 유엔에 기증하였으며, 토지에 대한 불가침권을 부여하고 있다.

기념묘지의 면적은 14만 4,182m²이며 최초 1만 1,000여 명의 전사자가 안장되어 있었으나, 이후 유가족이나 본국의 요청으로 이장이 되어 현재 2,309기(호주 281, 캐나다 380, 프랑스 46, 네덜란드 120, 뉴질랜드 32, 노르웨이 1, 남아프리카공화국 11, 터키 462, 영국 886, 미국 39, 대한민국 36, 무명용사 4, 비전투요원 11)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1978년에 건립한 12m 높이의 유엔군 위령탑 동판에는 6·25전쟁에 파견된 유엔군의 전투 장비, 인원 규모, 전사자 현황이 한글 및 영문으로 새겨져 있다. 2006년 건립된 전몰장병 추모명비는 전사자(실종자 포함) 전원의 이름이 검은색 대리석에 새겨져 있다. 유엔기념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사자에게 온라인 헌화를 할 수 있으며 안장용사 및 묘비 위치를 검색할 수 있다.



6.

조별 명단

광복 80주년,

남북 문화교류 리더십 캠프 조별 명단



번호	성명	소속학교	학과	조
1	전승민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1
2	이관욱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1
3	최지욱	국립강릉원주대	유아교육과	1
4	오시은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1
5	조지윤	인제대학교	법학과	1
6	이선호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
7	백찬엽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
8	공민석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
9	이원형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
10	황사원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
11	홍현주	단국대학교	법학과	2
12	나태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2
13	고도형	부산외대	국제학부	3
14	정부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3
15	김동현	경기대학교	법학과	3
16	오승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
17	노금송	홍익대학교	법학과	3
18	전영서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
19	문성아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
20	김태성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부	4
21	박준영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
22	박소연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4
23	박장준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4
24	신혜성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
25	이민혁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5
26	이경욱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5
27	강호민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5
28	정유진	성신여대	자유전공학부	5
29	정유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5
30	김계홍	서울디지털대	탐정학과	5



7.

비상연락망

비상연락망



김범수 원장	010-5883-0421
김병로 교수	010-8609-2889
이유철 선임연구원	010-4500-0704
신인석 연구원	010-8352-5259
김민지 연구원	010-2056-1611
장미숙 행정실장	010-2541-9295

Memo

Memo

Memo

Memo